

계 열 문 항 1

<가>

그들은 한숨을 후 쉬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설 새 없이 떨어져 쌓이는 벼알을 바라보았다. 담배 한 모금 맘 놓고 먹지 못하고서 저렇게 애써 지은 쌀알을 덕호네 함석 창고에 들여보낼 생각을 하니, 어제 구루마를 부서뜨리던 그 순간의 감정이 또다시 폭발되는 것을 느꼈다.

마당이 보이지 않도록 쌓이는 저 벼알! 병아리의 털같이 그렇게 노란 수염이 하늘을 가리키고 재미나게 쌓인 저 벼알! 저 벼알은 역시 자기들에게는 귀엽고 아름다운 빛만 보이고 나서 맘 놓고 만져보기도 전에 덕호의 창고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가을을 맞은 청초한 저 불타산. 그 위에 하늘이 파랗게 달음질쳐 갔다. 첫째는 그 하늘을 묵묵히 바라볼 때, 어젯밤 순사부장이 자기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법이란 것을 가르쳐야겠다” 하던 말이 그의 머리에 획 떠오른다.

“법, 법…… 법. 법에 걸리면 죽이는 법까지 있다지?”

그가 법이란 막연하게나마 전통적으로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알았지마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알지마는 어제 일을 미루어 곰곰이 생각하니 웬일인지 그 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영킨 실마리가 그의 온 가슴을 꽉 채우고 말았다.

(중략)

“왜 법에 걸리면 주재소에 잡혀가지 않우.”

첫째는 전신에 소름이 쭉 끼쳐진다.

첫째는 법을 설명하느라 이렇게 말하는 새, 어젯밤 자기의 행동이 역시 법에 걸린 노릇임을 가슴이 뜨끔 하도록 느꼈던 것이다. 자신은 이 신성불가침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나 웬일인지 날이 갈수록 자신은 이 법에 걸려들어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의 가슴에는 또다시 실뭉치가 옥 쓸어 올라 온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던 말이 얼핏 생각킨다. “배가 고파서 혈수할수없이 그랬다!” 역시 자기도 배가 고프니 혈수할수없이 그랬다. 그러나 법에는 걸려들 일이다. 그때는 배고픈 차라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 없이 그저 답답히 먹을 것만 찾기에 몰랐으나 이렇게 떡이며 밥을 먹고 나니 자신은 법에 걸릴 노릇을 또 한 가지 하였던 것이다.

이 서방은 그제야 알아는 들었으나 뭐라고 설명할 아무것도 없다.

“법이 법이지 뭐냐, 본래 법이란 것이 있느니라.”

“그저 본래부터 있는 게나?”

“암! 그렇지! 그저 법이니라.”

이 서방은 이 법이란 것이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는 벌써 이 법이 란 있었던 것같이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첫째는 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동시에 벗어나지 못할 철칙인 이 법! 어째서 자기만이, 아니 그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서방, 그의 어머니만이 여기에 걸려들지 않고는 못 견딜까?

<강경애, 『인간문제』(1934) 중에서>

<나>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그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文言)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도록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목표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후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사안을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법률 해석의 본질과 원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무엇이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법률 해석의 본질과 원칙에서 벗어나 당해 사건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해석이 허용된다면, 법원이 언제 그와 같은 해석의 잣대를 들이댈지 알 수 없는 국민은 법관이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닌 자의적인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할 것이며,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을 법원에 가져가 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사건번호 2006다81035) 중에서>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의(恣意)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치 또는 법의 지배는 좋은 통치 체제 이상의 핵심이다. 집행 이전에 미리 확립되었고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공적인 법규범을 통한 통치가 법치사상의 핵심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규범을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요청으로 풀이한다. 흔히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할 때는 “어떤 규율에서 정해진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하는 개인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규율의 공평한 적용의 요청, 즉 형식적 평등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 형식적 법치의 요청은 법규범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며, 법에 본래부터 내장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이 아니게 되는 법형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치, 즉 ‘법에 있어서의 정의(legal justice)’를 “본질적으로 유사한 집단에 속하는 것들은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요청으로만 파악하는 태도는, 법치와 정당성 사이의 관계를 매우 일면적으로만 이해했을 뿐이다.

만일 “모든 인디언을 죽이라”는 규율이 있을 때 동정심으로 어떤 인디언을 살려준다면 이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가? “여자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규율을 여자들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공평하게 대우한 셈이므로 정의인가? 이러한 예들은 공평한 규율의 집행이 법치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또는 ‘부분적 법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주 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규율의 공평한 집행이 명백하게 부정의(不正義)를 낳는 경우를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의의 근본 요청인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이라는 표어가 독일 나치 시대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은 ‘형식적 정의 및 법치의 역설’이 낳은 무시무시한 결과의 예이다.

우리는 인디언의 사례에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초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동등한 경우는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을, 여자 선거권의 예에서는 “규율의 공평한 집행은 ‘그 규율이 정의로운 규율 체계에 속하는 한에서만’ 정의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첨가해야만 이 역설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형식적 법치의 요청, 즉 형식적 평등의 요청이 지향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어떤 법규범이 규정하는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하는 관련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처우하라는 요청이 정의로운 것은 이 균등대우가 동등한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정의 및 법치의 목표 이념은 아니다.

1. <가>의 상황을 참고하여 <나>와 <다>의 주장을 비교하고 논하시오. (1,000±100자)

계 열 문 항 2

<가>

그야말로 크리에이터 전성시대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기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가 주목받으면서 덩달아 크리에이터가 인기다. 이제 대세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이들은 국내외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1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었다. 요즘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1순위가 크리에이터라고 하니, 1인 미디어가 대중 속으로 얼마나 깊게 파고들었는지 가능해볼 수 있다.

1인 미디어는 개인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말한다. 1인 미디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인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인 트위터,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 me2DAY, 페이스북 등이 활성화되면서 인맥 관리 차원을 넘어 미디어 서비스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가 대중문화 속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1인 미디어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다. 네트워크의 용량이 커지고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과 편집이 수월해짐으로써 1인 미디어의 핵심 콘텐츠가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었다.

유튜브는 동영상 전문 사이트로 개인들이 쉽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요리, 미용, 실험, 춤, 연주, 토크 등의 동영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해 올린다. 크리에이터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처럼 전문적인 장비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손쉽게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에 비해 양방향성과 상호작용성이 뛰어나고, 사용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방송 접근성을 높인다. 시청자들은 자기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구독’하는 형태로 소비한다. 즉, 특정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마다 구독자들은 ‘알림’을 받고 그 콘텐츠를 시청한다. 1인 방송의 매력은 바로 사용자와의 자유로운 소통이다. 방송 시간 내내 채팅창이 열려 있고 댓글로 시청자의 의견이 바로 방송에 반영된다. 이렇게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미디어 환경으로 1인 미디어, 특히 1인 방송은 대중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토론하는 기능이 강화되면서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문화와 사이버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독자들은 전통적인 매체인 TV나 신문을 통해 뉴스를 보기보다 오히려 1인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더 즐겨 보기도 하고, 유튜버들은 시사 이슈에 대하여 자신들만의 정치적 관점에 맞는 콘텐츠로 구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바야흐로 미디어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쌍방향성이 증대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나>

매스미디어가 오랫동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에 기여하여 왔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 사회적 자본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토대로 양산되는 사회적 자본은 관계 맺기에 역점을 두는 SNS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 간에 상호적으로 오고가는 신뢰감이 구축된 사회 네트워크로 정의하면서 신뢰감, 규범의식,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의 결과로 구축된 사회 관계망 안에 내장된 자원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나 조직 내에서의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얻어진다. SNS 또한 웹상에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SNS를 통해 관계 맺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나게 팽창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형성의 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해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소셜커머스는 SNS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위력이 반영된 것이다. 시민들이 응집

하여 집단화함으로써 대단위의 소비자층이 형성되어 상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한 것이다. 이처럼 SNS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응집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엄청난 숫자의 추종자들과 친구들을 응집하는 SNS는 막강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 이용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집단화된 이용자는 위력과 그로 인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입지를 관철시키고 알리는 데 집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SNS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며 사회적 권력 집중과 분산에서도 관심을 끌 것이다.

SNS는 정치적인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인맥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있는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여 쉽게 집단화하거나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더 다가갈 수 있다. 그 이유는 SNS를 통한 빠른 전파력과 실시간 여론 형성으로 민심읽기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다>

인터넷은 아마추어 저널리스트의 열기로 들끓고 있다. 큰 인기와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들조차도 저널리스트 훈련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 그들의 블로그가 담고 있는 뉴스 중 상당수는 그들이 대체하고자 목표로 삼는 그런 언론기관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명 블로거들이 뉴스를 수집하는 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그들은 교육이나 기술표준, 윤리규정이 결여된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는다. 그리고 자기들을 뉴스업계의 골리앗을 때려눕힌 당돌한 다윗이며 미디어 거인을 물리치는 퇴마사라고 정의한다.

<LA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신문이 프로 저널리즘을 견지하며 독특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내놓기 위해 진력하는 동안, 접속자가 많은 인터넷 블로그 중의 하나인 <허핑턴포스트>는 점점 더 많은 아마추어의 견해를 자기 사이트에 포함시켜 나갈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사이트가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런 목소리들이 뉴스를 가끔 왜곡해 음약이 아닌 잡음으로 만들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다.

<뉴욕커>의 레만은 “사회가 지식, 정보, 의견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기 위한 권위 있는 구조를 창출한다”고 했다. 왜 그럴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읽은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해짐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어느 기사가 일류 신문에 실렸다면, 우리는 그 기사가 기사가 투입되어 취재한 것이고, 여러 해 훈련을 쌓은 노련한 편집팀이 심사숙고해 사실 확인과 편집·교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그들 뒤에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증해주는 권위 있는 언론기관이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 필터가 사라지면 일반 대중은 수백만 명의 아마추어 저널리스트가 만들어내는 혼란스러운 사고의 무한한 바다에서 혼자 평가하고 혼자 취사선택하는 불가능한 작업에 직면하게 된다.

좌우익 양쪽의 블로그는 정치의 극단적 표현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정치적 견해를 사설란의 맞은 편 페이지로 배치하는 등 전문적인 편집을 채택하는 신문과는 달리 대부분의 블로그는 증거와 논증 없이 급진적이고 대담한 주장을 편다. 인기 많은 일부 블로그들은 독자가 열망하는 솔깃한 음모론과 선정성 넘치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로버트 새뮤얼슨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자기 현시욕의 폭발”이라고 묘사한, 이런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면은 우리의 정치적 담론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아마추어 저널리즘은 진지한 토론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와전시킨다.

2. <나>와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의 현상을 분석하시오. (1,000±100자)